

# 현상유지 갈망하는 중산계층의 이데올로기 반영된 문학장르

탐정소설 출현의 사회적 배경

심경석 | 순천향대 영문과 교수

탐정소설의 발생은 자본주의의 팽창과 그에 따른 귀족계급의 약화, 중산계층의 득세 그리고 이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도덕적·사회적 가치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또한 현상유지를 갈망하는 부르주아와 중간계층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것이며, 이들의 비밀스런 내적 욕망, 불안감을 이성적 힘으로 통제하고 싶은 또 다른 열망에서 기인한다.

왜 19세기 후반에서야 비로소 탐정소설의 정형들이 성립됐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이것은 탐정소설이 전통적인 사회적, 정신적 위계질서가 와해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당대의 복잡한 문맥에서 점차 그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탐정소설의 발생은 자본주의의 팽창과 그에 따른 귀족계급의 약화, 중산계층의 득세 그리고 이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도덕적·사회적 가치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물론 과학 발전에 의한 종교 권위의 약화, 실증주의적 사고, 산업화에 이은 도시집중화, 도시 빈민의 발생과 그에 따른 범죄의 증가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다.

## 19세기 들어 범죄에 대한 미학적 접근 가능해져

우선 지적해야 할 것은 19세기에 들어서야 범죄에 대한 '미학적' 접근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17, 18세기만 하더라도 정치와 종교가 서로 맞물리면서 대중들의 삶에 매우 강력한 구속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하는 것은 신을 거스르는 것으로 여겨 범법자들이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사소한 사기, 범법으로 분류되는 행위에도 중형이 가해지는 것을 당연히 여겼다. 또한 사회적 요인이 아닌 개인적 동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므로 범죄를 소재로 하는 문학작품은 주로 범인에 대한 처벌 또는 그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용서받는 교훈적 내용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러나 19세기에는 종교와 정치가 뚜렷하게 분리돼 법 집행에서 종교적 요소가 배제됐다. 또한 천문학, 지질학 등 자연과학이 발전하고, 특히 성서의 창조론을 부인하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당대의 성서적 세계관과 우주론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에게 대단한 충격을 줬다. 교회의 세속화에 대한 저항으로 영국에서 일어난 옥스포드 개혁운동은 약화된 종교적 권위의 투영이며 종교가 대중들을 더이상 지배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이 문학작품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났는데, 고딕 소설에서는 사악한 수도승(종교)과 타락한 영주(귀족)가 공포의 전율을 자아내는 존재였지만 19세기 후반 소설 《드라큘라》나 《프랑켄슈타인》에서는 도시가 그 배경이 되고 뱀파이어나 과학이 독자들에게 공포와 전율의 쾌락대상이 된 것이다. 이제 귀족과 종교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런 맥락에서 19세기 말에 도덕적, 종교적 관점이 아닌 '미학적'인 면, 즉 범죄와 그에 대한 처벌의 과정을 지적, 정서적 쾌락을 줄 수 있는 문학적 소재로 삼게 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물론 탐정소설에는 도덕적 가치 판단, 즉 범인의 사악함과 그에 따른 처벌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것은 독자들에게 죄 없는 자에 대한 동정과 그 범인의 정체가 밝혀지기를 바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즉 독자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데 그 무게를 뒀다. 작가와 독자가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범죄의 형태와 그 해결 과정에 있는 것이다.

## 실증주의적 사고의 영향으로 범죄의 원인 연구해

범죄를 바라보는 19세기의 시각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범죄를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현상이 생긴 것과 더불어 범죄 행위를 분석할 때 과학적이며 사회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이었다. 이것은 물론 실증주의적 과학 발전의 영향인



19세기 후반 자본력을 갖춘 중산계층의 성장은 탐정소설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셜록 홈즈의 모험>에 나오는 베이커거리의 풍경.

데, 이로 인해 범죄 원인에 대해 연구하게 되며, 도덕적·종교적 관점에서 범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닌 사회구조적, 유전적 결합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 했다.

실증주의에서는 세계를 신비롭게 여기지만 귀납적인 사고와 연구를 통해 부닥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 신비를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사고는 과학적인 범죄학, 사회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범인에 대한 교정행정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당연히 이런 실증주의적 사고는 탐정에게 논리적, 과학적으로 사건에 접근하게 한다. 포의 1840년대 소설 <모르그가의 살인사건>에서 탐정 뒤팽이 직관력뿐만 아니라 귀납적인 추리력과 심리적 분석능력을 발휘한 것이 그 좋은 예다.

#### 기독교적 이상주의에 대한 일탈욕망 담아내

19세기 후반에는 공장의 기계화, 식민지 지배, 자유 무역으로 인해 제조업자와 도시의 소상인들

도 부를 축적하게 돼 그 층이 두터워진 부르주아와 상점주인들, 사무직 종사자들, 기술자들, 공무원들이 형성한 중간계급이 사회의 주류로 등장했다.

이런 사회적 변화도 탐정소설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들 중산계층은 귀족들을 타락한 계층으로 여기면서 평화로운 기독교 가정에서 구원을 찾는 새로운 윤리를 추구했다. 이 윤리에서는 무엇보다도 천사와 같은 부인의 역할이 강조됐고, 성적 욕망이 결여된,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된 가정생활을 이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도덕적 표준, 자립, 물질적 성공이란 가치를 강조했다.

이런 중산계층들은 두 가지 도전에 부닥치게 되는데, 외적으로는 하층계급의 정치적 등장과 집단적 요구에 의해 자신들의 헤게모니가 위협받게 된 것이었고, 내적으로는 기독교적, 가족적 이상주의에서 일탈하고자 하는 성적 욕망과 물질적 욕망을 추구하는 공격적 본능이 이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한 것이다(19세기에 인간의 성적, 공격적 본능에 대한 탐구가 고조됐고 후에 이것은 프로이트 이론으로 정리된다).

19세기의 빈곤, 실업, 인구과밀이 혁명을 일으키리라는 위기가 영국사회에 고조돼 있었고 실제 1889년 영국의 부두 노동자파업은 그 위기의식을 더욱 부추겼다. 즉 이들 하층 계급들은 부르주아, 중간계급들의 개인주의적 자본주의 정신을 전복하는 집단적, 사회주의적 이상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정의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하층계급의 운동이 이들의 빈곤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중산계층에 의해 시작됐다는 점이다. 자신들의 도덕적 우월성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들 중산계층은 부르주아 가치의 타락, 도덕적 위선을 폭로하는 소설과 사회비평에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하층계급의 정치적 운동은 중산계층의 헤게모니에 대한 집단적 도전일 뿐더러 중산층의 죄책감이라는 내적 긴장이 표출된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탐정소설의 정형이 성립됐는데, 이는 중산층들의 위선과 죄를 강조하는 사회적, 지적 운동에 의해 생긴 의문과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동시에 기독교의 높은 도덕적 표준에서 일탈하고자 하는 욕망을 비밀스레 만족시켜주는 예술적 형태로 고착됐다.

#### 범죄를 이성의 통제대상으로 변환시켜

탁월한 탐정은 우선 도덕적, 지적 으로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아간다. 이들은 또한 퇴폐적 냄새를

풍기는데 물질적 성공, 신분 상승을 스스로 거부하지만 뒤팽이 밤을, 홈즈가 마약과 아노미(anomie)에 탐닉하는 것처럼 내적 욕망을 이성적 질서와 자기 절제로 잘 조화시킨다. 그러면서 내러티브의 정형에서 범죄가 극히 개인적인 원한이나 동기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처리해 현존하는 사회질서, 즉 자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신분 성취의 근간인 자본주의적, 경제적 질서의 정당성을 재확인했다.

또한 범죄를 일종의 수수께끼 같은 게임으로 축소하며 고도로 정형화된 예술적 형태로 바꿈으로써 잠재적으로 극도로 혼란스럽고 위험한 문제를 이성적인 논리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변환시켜 안정감을 맛보려 했다. 더구나 이 정형은 이상적 가정이라는 도덕적 '억압' 속에서 발생하는 남성 독자들의 잠재적 불만을 달래는데, 이것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살인(일탈적인 잠재 욕망)을 독자가 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느낌이나 죄책감을 주지 않게 해결하는 방식으로 서사가 전개된다.

결국 이런 정형을 갖춘 탐정소설이 19세기 말에 문학 작품으로 성립된 것은 사회 격변과 혼란을 두려워하며 현상 유지를 갈망하는 부르주아, 중간계층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것이며, 또한 이들의 비밀스런 내적 욕망, 불안감을 이성적 힘으로 통제하고 싶은 또 다른 열망에서 기인한다. ■

**심경석** 교수는 미국 유타대에서 영문학 석사학, 캐나다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순천향대 영문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논문으로 <레이먼드 첼러리의 탐정 소설에 나타난 기사도: 필립 말로우의 <승리와 패배> 등이 있고, 지은 책으로 <인터넷 영화 읽기 1,2> 등이 있다.